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20주년 기념 특별전
12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조각가의 집

A Home
for Sculpture

2026. 05. 04 - 10. 14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은 문신의 부인인 최성숙 관장의 기증으로 2004년 5월 10일 개관하였다. 문신미술관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작품과 유품,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문신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문적인 연구와 전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의 예술과 이어지는 젊은 작가와의 소통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조각가 문신의 전시뿐 아니라 <건너편의 시선>부터 <섬유의 시간>까지 다양한 기획 전시에서 예술과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상·공예·영화 등 확대된 매체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home.sookmyung.ac.kr/moonshin/index.do>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시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추산동 언덕에 위치한 문신미술관은 작가 문신의 작품과 예술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15년 세월이 걸쳐서 직접 미술관을 건립하여 1994년 문신미술관이 개관하였다. 미술관 개관 1년 후 타계하면서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작가의 유언에 따라 2003년 문신미술관은 시에 기증되어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미술관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야외조각전시장, 문신원형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각, 작품과 유품,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기획전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시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moonshin>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르네상스플라자 B2

Tel. 02-2077-7052 Email. moonshin@sm.ac.kr

주최 숙명여자대학교문신미술관 총괄 홍경아 기획 나진희 번역 박선주 디자인 아트퍼블리케이션 디자인 고희



숙명여자대학교문신미술관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조각의 집

A Home for Sculpture

〈조각의 집〉은 조각가 문신이 고민해 온 공간에 대한 기록이자, 예술이 머무는 집을 짓고자 했던 한 작가의 깊은 사유를 담은 전시이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는 문신이 꿈꾸었던 예술과 건축이 하나로 맞닿는 지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시 조각의 집은 조각가 문신(文信, 1922-1995)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예술 창작 프로젝트인 문신미술관 건축의 과정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이 전시는 하나의 미술관이 완성되기까지의 물리적 기록을 넘어, 조각가 문신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궤적, 그리고 '공간'을 예술로 사유한 흔적을 따라간다.

문신의 예술 인생은 끊임없는 이동의 연속이었다. 고향 마산을 떠나 일본, 서울, 프랑스로 이어진 유랑의 시간은 작품을 위한 치열한 여정이었지만, 그 길이 길어질수록 작가의 마음속에는 귀향과 정착에 대한 열망이 깊어졌다.

10대 시절 막연한 꿈으로 땅을 구입했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마침내 자신의 작품을 위한 집을 완성하며 오랜 염원을 현실로 만들었다.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그렇게 탄생한 공간이다. 미술관은 작가가 스스로 설계하고, 쌓고, 허물기를 반복하며 14년에 걸쳐 완성한 예술 결정체이다. 수만 번의 사포질로 완성되는 목조각처럼, 문신은 건축 역시 반복과 인내의 과정으로 다루었다. 건축 과정에 임하는 그의 태도는 조각을 대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았고, 그 집요함과 진정성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The exhibition, *A Home for Sculpture*, focuses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oonshin Art Museum, which was the most grandiose art project completed by the sculptor Moon Shin. This exhibition looks beyond the physical records of how the art museum was completed and follows the artist's perspective on art, life trajectory, and traces of how the sculptor explored 'space' as art. As an artist, Moon Shin was constantly on the move: he left his hometown Masan for Japan, then moved to Seoul, where he later left for France. Although, this was a long and exhaustive journey in pursuit of art, his desire to return and settle in his hometown increased with time.

During his teenage years, Moon Shin bought land based on a wild dream, however, a year before he passed away, he turned his longtime wish into a reality by building a home for his art. This is how a space like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was born.

This art museum is a work of art, which the artist himself designed and completed after 14 years of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From Moon Shin's point of view, architecture is a process of repetition and perseverance, which is similar to completing a wooden sculpture after sanding it a million times. Thus, the artist did not treat architecture differently from sculpture; he devoted a profound level of emotion alongside his persistence and sincerity.

전시는 1981년부터 실제 미술관 건립을 위해 제작된 설계도, 조감도, 아이디어 스케치, 각종 자료와 사진을 통해 문신미술관의 건축 과정을 살핀다. 건축은 순수 예술과는 달리 '집'이라는 기능을 전제로 한다. 사람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문신은 자신의 창작물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의 건축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작품과 공간, 인간이 공존하는 하나의 유기적 조형물이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건축, 그리고 작품의 집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두가지 성격은 문신미술관을 더욱 특별한 장소로 만든다.

이처럼 문신 예술은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으로 확장되며, 공간과 조각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에 자리 잡은 문신의 작품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속 공간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백색 조각에 맞춘 특별한 공간 '은하수 갤러리'를 중심으로, 연구소에서 출발해 자료 연구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현대미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을 보완하며 문신 예술 세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Consequently, the exhibition looks into specific details of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oonshin Art museum through designs, bird's eye view drawings, idea sketches and other materials from 1981 that are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museum. Unlike fine art, architecture is subject to the function of a 'house,' where people can stay and rest, accordingly, Moon Shin intended to provide a resting place for his artwork. His museum is not simply an exhibition space, but an organic sculpture where art, space and human co-exist. This art museum is special because of its two characteristics: its architecture is regarded as a work of art, whereas the museum itself is viewed as a home to art.

The final part of this exhibition, which reflects on the concept of 'expansion,' presents sculptures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Moon Shin's works assumed a new role with its placemen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2004, since they became available in a highly accessible location in the city center. Although the museum originally served as a research center, it grew to accommodate various contemporary art surrounding a space that was custom built for white sculptures - 'Galaxy Gallery' - while maintaining its focus on research. Hence, the museum complements the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while opening another possibility for Moon Shin's art world.

정착_ 집을 짓다

"1947년 마산에서 개인전 당시 작품 대부분이 매각되었다. 작품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마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땅을 구입했다. 전면에는 경사진 산을 깎아 터를 마련하여 석계단을 깔았고, 어깨 높이의 석축 위에 흙을 메우니 터가 다져졌다. 미술을 위한 전당을 짓는다는 것이 그때 나의 의욕이었다."

문신의 글 <마산 미술관의 초석이 되었던 건축에 관하여> 중에서



Settlement_ Building Houses

마산 문신미술관 건축 연보

- 1938- 일본 유학 시절 모은 돈을 아버지를 통해 미술관 부지 약 2,500평 매입하다
- 1945 미술관 부지 약 2,500평 매입하다
- 1948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미술관 기초 공사 시작하다
- 1981 마산 정착 후 자택 옆 언덕 조성 후 자택 뒤로 계단식 옹벽 공사를 마치다
- 1984 미술관 야외 전시장 기초 공사와 제1,2 옹벽 작업으로 평지 조성하고, 조각작업실을 짓다
- 1985 제3 옹벽 공사와 정수지 쪽 진입로를 조성하여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입구와 축대를 조성하다
- 1986 건설부로부터 추산공원 내 문화시설 '문신미술관', '야외전시장' 건립을 허가받다
- 1987 전시관 건축을 시작하고, 재단법인 문신미술관을 설립하다
- 1990 전시관을 완공하고, 마산시로부터 미술관 준공을 허가받다 문화부에 재단법인 문신미술관을 등록하다
- 1991 미술관 야외전시장 모자이크 바닥을 시공하다
- 1993 미술관 야외전시장에 인공폭포를 완성하다
- 1994 문화부에 문신미술관 등록을 마치고, 5월 27일 문신미술관을 개관하다

확장_ 경계를 넘어

대형 석조 조각을 위해 지어진 공간

조각의 크기를 고려해 두 개 층 높이로 설계된 원형 유리관은 어느 각도에서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곡선형 공간은 조각이 지닌 생명의 흐름과 유기적인 형태를 더욱 강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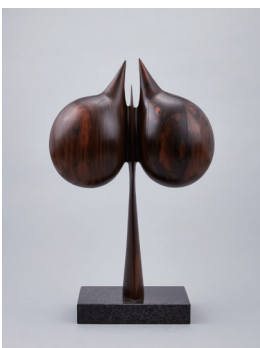


Expansion_ Beyond Boundaries

백색의 조각과 조화를 이룬다. 은하수갤러리는 이러한 조각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공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기념비적인 공간이다.

다양성을 위한 전시의 장

문 갤러리와 무지개 갤러리는 문신의 중소형 조각과 드로잉, 유품,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며,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현대 미술을 유연하게 수용하도록 열려 있다. 이러한 확장된 전시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표현과 매체가 공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펼친다.



유랑_ 길 위에서

Nomadism_ On the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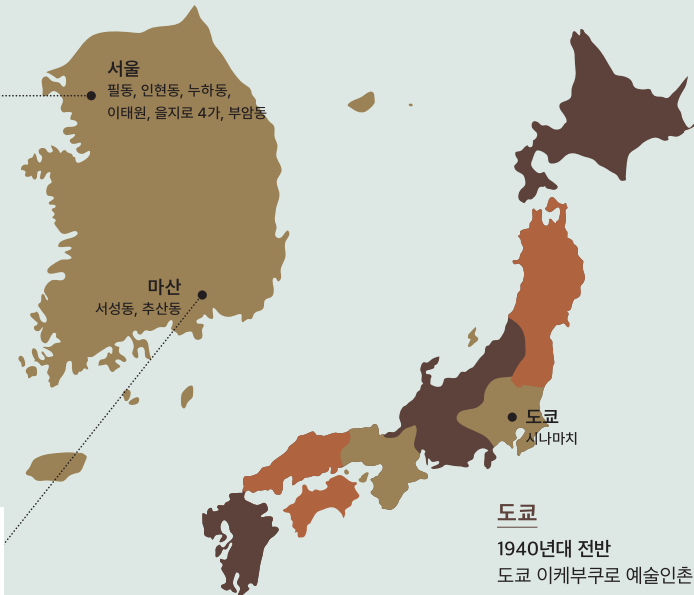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아틀리에 Ateliers in Korea and Japan



서울
1950년 후반 필동, 인현동, 누하동
1965~1967년경 이태원과 을지로
1976년 서울 부암동



마산
1930~1940년대 중후반 경남 마산, 서성동 대흥주조장
1980~1990년대 경남 추산동



도쿄
1940년대 전반
도쿄 이케부쿠로 예술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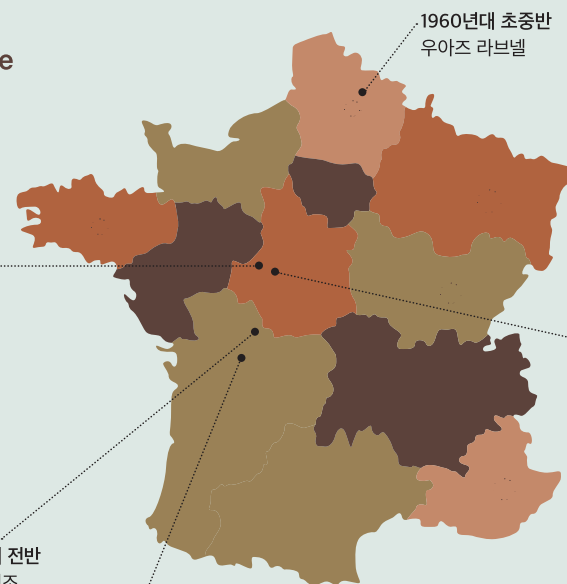
프랑스의 아틀리에 Ateliers in France



1990년대 초반 파리 라데팡스

1970년대 전반
에스 벨레조

1970년대 후반
에스 프레데



1960년대 초중반
우아즈 라브넬



1960년대 말
파리 몽파르나스와 캄브르네

미술관으로 이어진 건축적 실천들

이번 전시는 문신미술관의 건축 과정과 함께 작가가 공간과 건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단서들로 구성된다. 1960년대 초 중반 파리 외곽의 고성(古城)을 수리했던 경험부터 1967년 폴리에스터 작품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 제작과 같은 시기 문신이 직접 설계한 이태원 주택, 프랑스 공모전에 당선된 공원 디자인 등의 사진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드로잉 등은 그가 조각의 영역을 넘어 건축적 고민을 계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1961~67 라브넬성 수리

파리 외곽 고성(古城)에서 문신은 1961년부터 1967년 사이 4년간 수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 성은 조각가 라슬로 자보가 예술가들을 위한 아틀리에로 사용하던 곳으로, 문신은 이곳에서 주중에는 수선공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작업을 이어갔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조각 작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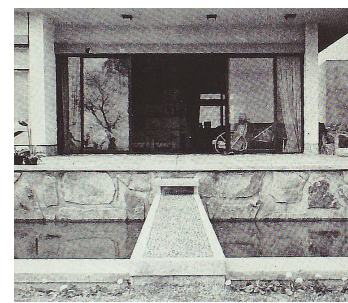
1961~67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 제작

1961년 시작된 시리즈로 1967년 <문신 도블작품전>에 출품된 작품이다. 내부에서 색빛과 반사 굴곡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었고, 당시 한국에서는 드물게 조각과 건축을 결합해 새로운 시각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67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 한 이태원 집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으며, 그 독특함 덕분에 1967년 건축 잡지 『공간』에 소개되었다. 대청을 이루는 입구 디자인과 건물 뒤쪽의 나선형 계단은 문신 조각의 특징이기도 하다.



1974 도시 공원 조형물 모형

프랑스 현대 도시 미학을 연구하는 예술 단체 포름 에 비의 <도시 미학과 활력을 위한 탐구>에 출품된 조형물 모형이다. 문신은 1980년 이후 야외에 대형 조각을 설치하며 도시 내 예술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0~70년대 건축 드로잉들

